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좀 더 효과적인 방재, 교통 계획 수립 등을 위해 도시 주간 활동인구 조사	미국
문화·디자인	3	가정배달 도서관 서비스 제공	시드니
산업·경제	4	중국 및 아시아 기업을 위한 기업특구 지정	런던
건강·복지	6	아동 예방접종법 강화	뉴사우스웨일즈
	8	3세 이하 유아 보육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	원헨
	10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Youth Station' 개장	키타큐슈
행정·재정	12	"교토 NPO지원 연대 융자제도" 신설	교토
도시환경	13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커튼·녹색카펫 만들기' 사업 확대	오사카
	16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위해 '스마트 녹색 비즈니스 프로그램'	시드니
	17	확대 시행	
		'Renew Boston 전략계획 2013' 발표	보스턴
도시교통	20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멕시코시티
	23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워싱턴 D.C.
	24	혼합형 이동 방법 및 경로 제공 정보 사이트, '온리무브' 개설	리옹
도시계획·주택	25	도심에 취약계층과 대학생을 위한 혼합형 사회적 주택 개장	파리
	28	도시역사유적 등록부에 1만 3,000여 곳의 옛 산업시설 등재	리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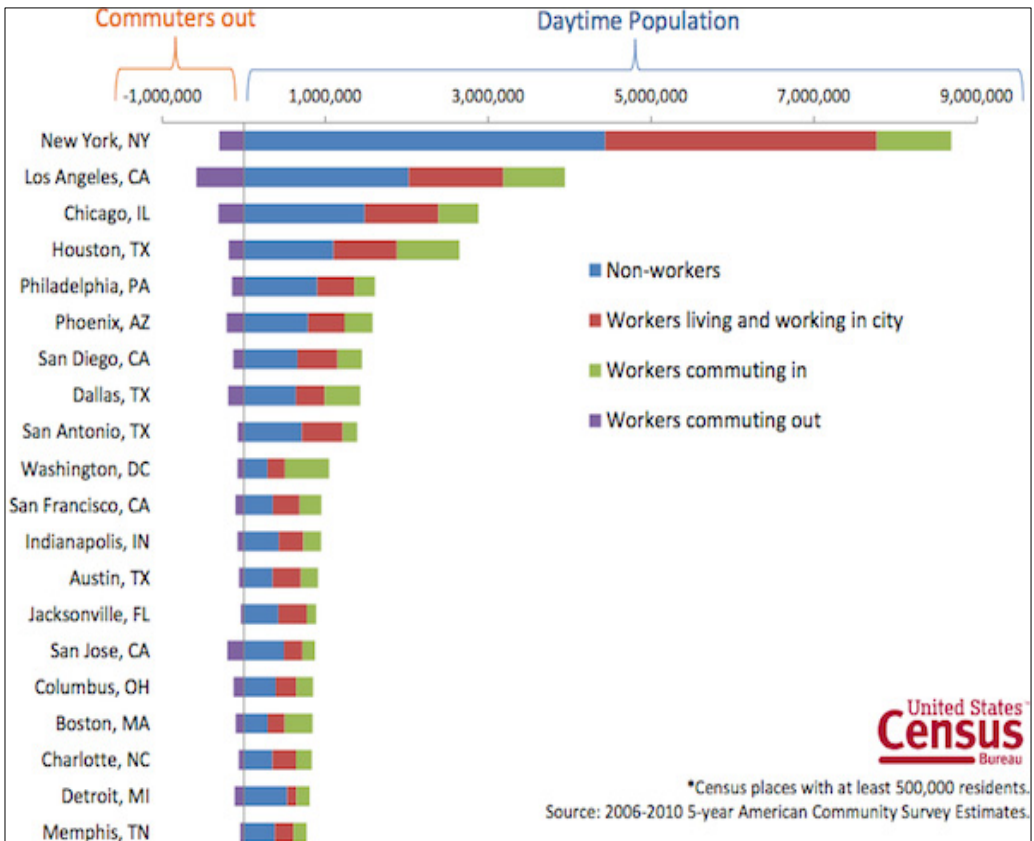
헤드라인 뉴스 (행정·재정)

1. 좀 더 효과적인 방재, 교통 계획 수립 등을 위해 도시 주간 활동인구 조사 (미국)

○ 도시의 경우 주간에 경제활동을 위해 외곽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거주인구와 주간 활동인구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재, 대중교통 등 도시 관련 계획 수립 시 거주인구보다는 경제활동인구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연방 통계청은 최근 인구 통계 설문조사 시 실제 거주 지역과 경제활동 지역을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각 도시의 ‘주간 인구’(Daytime Population) 자료를 발표하였음.

- 이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맨해튼의 거주 인구는 150만 명이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규모는 300만 명이 넘음. 따라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또는 재해, 재난 시 대피 시민 수송계획 등을 단순히 거주 인구 자료만을 이용하여 수립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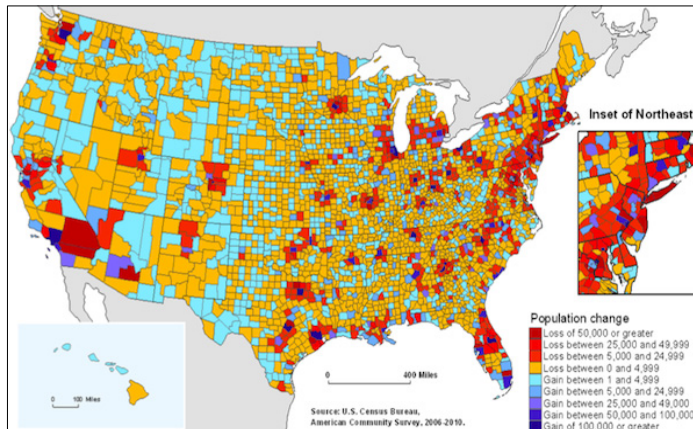
-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통근자 보정 인구’(Commuter Adjusted Population) 자료를 활용하면 도시와 외곽지역 간의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의 통행패턴과 그 규모를 예상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제활동과 주거생활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주) Non-worker: 비경제활동인구, Working living and working in city: 경제 활동을 하며 도시범위 내에 거주하는 인구, Working commuting in: 각 도시로 유입되는 경제 활동 인구, Working commuting out: 각 도시에서 유출되는 경제 활동 인구

<주요 대도시의 거주 인구와 활동 인구를 구분하여 나타낸 그래프>

- 이러한 자료는 지역별로 실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매일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와 거주인구의 비율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음. 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면 해당 도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교외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예를 들면 맨해튼의 경우 $(\text{수입노동자수} + \text{거주노동자수}) / \text{거주노동자수}$ 비율이 2.81인데 이는 매일 맨해튼 거주노동자수의 1.81배의 노동자(worker)들이 교외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주간에 각 도시로 유입/유출되는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지도>

(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5/most-important-population-statistic-hardly-ever-gets-talked-about/5747/)
 (www.census.gov/hhes/commuting/data/daytimepop.html)

문 화 · 디 자 인

가정배달 도서관 서비스 제공 (호주 시드니市)

- 시드니市 공공도서관은 장애나 병 등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원하는 도서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 가정배달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도서관의 가정배달 서비스 팀은 일반가정,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시드니 전역에 매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독서의 즐거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시드니의 가정배달 도서관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거동이 제한된 장애인, 환자 등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195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시민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해 원하는 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서로부터 직접 도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상호 대화형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현재 가정배달 서비스팀은 2주에 600여 권의 책을 배달하고 있음.
- 이용자들은 “사서들이 매 격주 책을 배달해 주기 때문에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책을 빌려 읽을 수 있고, 또 사서들이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책을 고르지 않아도 그들이 선택해서 가져다주는 책을 읽어도 좋다”고 말하면서 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음.



〈집에서 도서관 책을 배달받는 시드니 시민〉

(www.sydneymedia.com.au/library-books-and-more-delivered-to-your-door/)

산 업 · 경 제

중국 및 아시아 기업을 위한 기업특구 지정 (런던市)

- 런던市는 2013년 5월 런던 동부의 항구지역인 로얄 알버트 독(Royal Albert Dock)을 2022년까지 중국과 아시아 기업을 위한 영국 최대 규모의 기업특구(Enterprise Zone)로 조성할 것이라 발표하였음. 이 기업특구 지정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ABP가 이 지역에 10억 파운드(약 1조 7,7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함

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이번 투자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영국에 직접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로, 23만 제곱미터의 업무시설과 30만 제곱미터의 주거, 상업 및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이 기업특구는 금융산업, 첨단산업,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및 아시아 기업들의 영국 및 유럽시장 진출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1단계가 완료되는 2017년부터 중국 및 아시아의 여러 기업이 입주할 예정임.
 - 현재 런던에는 두 개의 기업특구가 있으며, 런던시는 기업특구 지정 시 각종 세금 면제와 행정 편의 제공 등 개발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런던시는 이번 기업특구 지정을 통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년 2,300만 파운드(약 407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조성 완료 시점까지 영국 경제에 60억 파운드(약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업특구 조성 조감도〉

(www.london.gov.uk/media/mayor-press-releases/2013/05/mayor-announces-1bn-deal-to-transform-royal-albert-dock-i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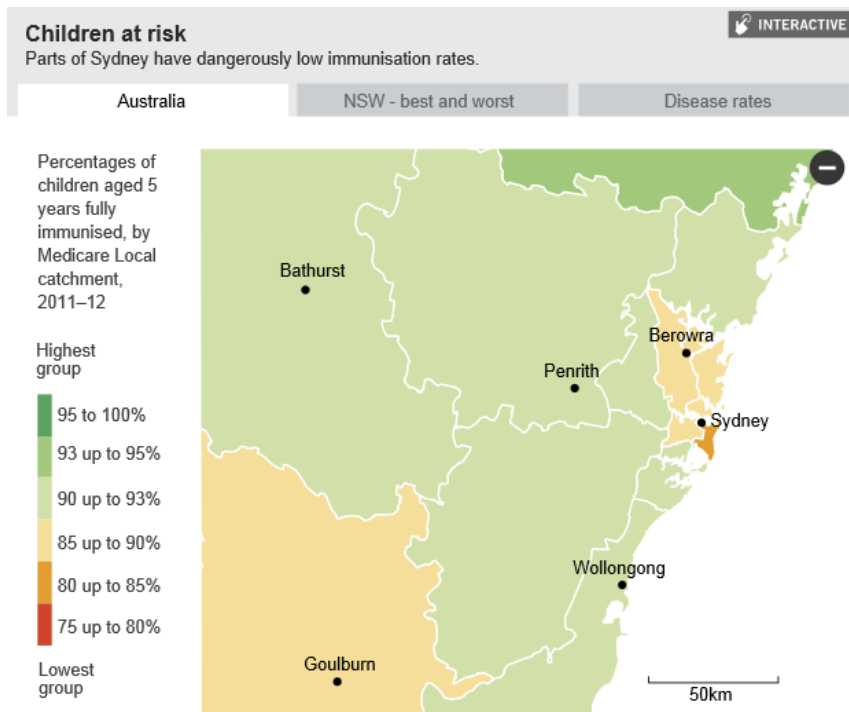
건 강 · 복 지

2. 아동 예방접종법 강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기존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0)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가 예방접종 기록 또는 접종 면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못하게 됨.

-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주치의나 다른 예방접종자에 의해 작성된 면제사유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매우 예외적으로 종교적인 사유나 예방접종을 금기시하는 의료 문화 등의 경우에만 면제를 인정하게 됨. 또한, 보육시설 관계자에게도 예방접종 기록 보유가 의무화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게 됨.

-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방접종률은 92%로 높은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큼. 뉴사우스웨일즈 북쪽 해안 지역 및 서쪽, 그리고 시드니 지역의 예방접종률이 특히 낮은 편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의 32개 지역에 약 7만 7,000명의 어린이가 완전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외딴 지역, 시드니 시내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그리고 원주민 거주 지역 등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 지역 예방접종률>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

- 주정부는 법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접종률을 높일 계획임. 우선 예방접종 의식 향상 운동인 ‘Save the Date to Vaccinate’ 캠페인을 전개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옥외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임.

- 동시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쉽게 하도록 함. 또한, 보육시설들이 예방접종 기록에 접근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등록 프로그램(Childcare Enrolment Toolkit)’을 개발할 예정이며, 원주민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원주민 담당관(Aboriginal Immunisation Liaison Officers)’을 임명할 예정임.

(www0.health.nsw.gov.au/news/2013/20130528_00.html)

3. 3세 이하 유아 보육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 (독일 뮌헨市)

- 법이 개정되어 2013년 8월 1일부터 0세에서 3세의 유아는 종일 보육을 받을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됨에 따라 뮌헨市는 1,400개의 새 보육원을 설립하고 수요에 맞춰 보육교사를 확충할 예정임.

- 연방 정부는 0세에서 3세 유아의 39%가 보육 시설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뮌헨市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60%가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市가 확보하고 있는 보육원, 탁아소 등 육아시설의 공급률은 39% 이상이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보고 市는 3세 이하 유아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보육원을 설립할 계획임.

- 아직 9월까지는 시설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육 시설의 제공은 긴급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은 부모의 사회적 상황과 직업 현황에 따름.
- 뮌헨市는 2008년부터 연방 차원의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 ‘KITA’에 따라 보육교사를 양성해 왔지만 보육교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16년까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2700만 유로(약 4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市는 직업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및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 지망 학생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자기 계발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뮌헨市 교육체육국은 市 보육시설에서 자녀를 보육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Service U3”이라는 부모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함.
 - “Service U3”의 종사자들은 KITA 프로그램을 대신한 놀이방 및 보모 서비스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올 가을까지 시범 운영되며, 향후 市 전역에 개설되어 모든 연령대의 육아 상담으로 확대될 예정임.

(www.muenchen.de/rathaus/Stadtfinfos/Presse-Service/Pressemitteilungen-2013/0305Aktionsprogramm-f-r-unter-3-j-hrige-Kinder--Stadt-schafft-1-400-neue-Betreuungspl-tze-und-unterst-tzt-Eltern-bei-der-Platzsuche.html)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Youth Station’ 개장 (일본 키타큐슈市)

– 키타큐슈市 어린이가정국은 2013년 4월 2일 쿠로사키 컴시티(黒崎 コムシティ) 지하 1층에 ‘키타큐슈 시립 유스 스테이션’을 신규로 개장하였음.

- ‘유스 스테이션’은 중·고생 등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방침임. 따라서 유스 스테이션은 (1) 편하게 들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 [교류], (2) 다양한 놀이, 체험활동의 장 [놀이·체험], (3)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배움의 장 [배움], (4) 젊은이에 관한 정보알림의 장 [정보알림] 등 네 가지의 목표를 설정함.
- 유스 스테이션은 자유공간, 학습실, PC게임 코너, 조리실·식당, 세미나룸, 공예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해 놓았고, 유·무료로 이용이 가능함.
-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방과 후 또는 휴일에 부담 없이 들러 친구들과 대화나 자습,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으며, 밴드 연주, 댄스, 탁구, 간단한 요리, 수예 등 자유롭게 취미활동도 할 수 있음. 향후에는 관련 강좌나 이벤트 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임.

〈유스 스테이션의 공간 활용〉

구분		공간기능	사진
무 료 공 간	자유공간	· 친구들과 대화의 장소로 식사도 가능	
	학습공간	· 숙제와 자습 등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	
	PC게임 코너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TV게임 가능	
유 료 공 간	스튜디오 (3개)	·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밴드연주나 개인악기 연주 연습이 가능 · 마이크, 악보대 무료 대여 · 1개 스튜디오는 연주 녹음 서비스 제공	
	다목적홀	· 댄스, 탁구연습 가능 · 홀의 2면은 거울 설치 · CD, i-pod 재생가능한 미니컴폰트 설치	

구분		공간기능	사진
유료 공간	세미나룸 (2개)	· 회의, 연수 가능 · 프로젝트, 스크린 무료 대여	
	부엌과 식당	· 간단한 조리 가능 · IH히터, 전자렌지, 오븐, 밥솥 배치	
	공예실	· 목공, 재봉작업 가능 · 수작업 설비 및 재봉틀 배치	

北九州市立 ユースステーション

音楽
ダンス
料理
ゲーム
パソコン
勉強


 近未来を担う中・高校生をはじめとする若者が、学習や体験、スポーツ・文化活動、仲間との交流等を通じて、自己を発見し、社会性や自立性を身につける場です。
 若者のみなさんのお越しをお待ちしています!!

ユースステーションってどんな施設?

場 所	コムシティ地下1階 (北九州市八幡西区黒崎三丁目15番3号)
利用対象者	中・高校生をはじめとした若者 ※上記以外の方もご利用できます。
開 館 時 間	月曜日～金曜日 13時00分～21時00分 ※学校の長期休業中には、平日も10時から開館する予定。 土・日曜・祝日 10時00分～21時00分
利 用 料 金	入館及びフリースペース、PC・ゲームコーナー、学習スペースの利用は無料。 有料の部屋の利用料金については、裏面利用料金表をご覧ください。 ※20歳未満の未成年者については、使用料が半額になります。

★施設案内★

★フリースペース
(みんなでおしゃべり、話し合いの場)



★PC・ゲームコーナー
(パソコンで検索、友達とゲーム)



★多目的ホール
(ダンスの練習やみんなで卓球)



★スタジオ
(バンド演奏など音楽活動をしよう!)



★学習スペース
(宿題や自習をしよう!)



★キッチン・ダイニング
(みんなで調理や季節事業を!)



※この他に、工芸室(色んな作業ができるよ<マシンあり>)やセミナールーム(会議やセミナーができるよ)もあります。

〈유스 스테이션 홍보 전단지〉

(www.kitakyouthnet.jp/saasiteminfopgs/pageview?nn=YELL&ii=571&sg=225)

(www.city.kitakyushu.lg.jp/ko-katei/27100000.html)

(www.city.kitakyushu.lg.jp/files/000141729.pdf)

행 정 · 재 정

“교토 NPO지원 연대 융자제도” 신설 (일본 교토市)

- 교토市 문화시민국 지역자치추진실은 NPO법인의 사업확대에 따른 운영자금 · 시설비 자금수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교토市, 교토府, 금융기관, 공익재단법인 교토지역창조기금(京都地域創造基金)과 공조하여 “교토 NPO지원 연대 융자제도”(キョウトNPO支援連携融資制度)를 신설하고 2013년 6월 3일부터 교토市 소재 NPO 활동 지원을 위한 융자제도를 실시함.
- 공익재단법인 교토지역창조기금은 2009년 3월 도쿄시민 300인 이상의 기부로 설립된 시민재단으로, 시민 ·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살기 좋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교토府, 교토市 등 행정기관의 협조하에 금융기관과 공익재단법인이 NPO 법인의 활동을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일본 최초의 시도로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산케이 신문(産経新聞) 등 주요 일간지(2013년 5월 29일자)에도 소개됨.
- 본 융자제도는 대출원금 300만 엔(약 3,570만 원) 미만은 무이자 대출, 500만 엔(약 5,950만 원) 미만은 실질금리 1.0%로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제도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교토 NPO지원 연대 융자제도의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단체	· 교토府 내에 사무소가 있고 교토府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NPO 법인
대출한도	· 1개 법인당 500만 엔 이내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정비자금 등
대출기간	·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1년 포함 5년 이내
이용비용	· 연 2.0 %(고정): 교토市 · 교토府 보조금을 바탕으로 공익재단법인 교토지역창조기금이 이자의 일부를 NPO 법인에 보조함. - 차입 시 원금 300만 엔 미만: 무이자 - 300만 엔~500만 엔 미만: 실질금리 1%
담보	· 원칙적으로 불필요
연대보증인	·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 1인
취급 금융기관	· 교토신용금고, 교토호쿠토신용금고(京都北都信用金庫) 교토은행, 교토중앙신용금고
공익성 심사	· 공익재단법인 교토지역창조기금에서 심사 담당
(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149998.html) (www.plus-social.com/) (www.plus-social.com/_userdata/130529_mainichi.pdf) (www.plus-social.com/_userdata/130529_sankei.pdf) (www.plus-social.com/cn8/kyoto_yushi.html) (www.plus-social.com/_userdata/yushi_release130528.pdf)	

도 시 환 경

4.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커튼·녹색카펫 만들기’ 사업 확대 (일본 오사카市)

- 오사카市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녹색커튼·녹색카펫 만들기’ 사업의 확장을 위해 2013년도에는 민간사업자 모집, 사진 컨테스트 개최, 수확물을 이용한 요리레시피 모집 등 3가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일반시민도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 ‘녹색커튼’이란 채광이 잘 되는 창가에 고야, 나팔꽃, 고구마 등의 덩굴식물을 심어 커튼처럼 창가에 드리움으로써 햇빛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사업임.

- 고야는 일본 오키나와 원산의 대표적인 여름작물로 애호박크기의 울퉁불퉁한 열매 모양이 특징임.
- ‘녹색커튼’은 햇빛에 의한 건물의 온도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식물의 잎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주위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주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이를 통해 여름에 에어컨 사용시간 단축 등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도시녹화사업으로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도 증대시킬 수 있음.



<녹색커튼·카펫 만들기 전단지(좌), 사업로고(우)>

- 오사카市는 도시 열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고야, 고구마 등 작물을 활용한 녹색커튼·녹색카펫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공공기관에 조성된 녹색 커튼·카펫 사례>

- ‘녹색 커튼·카펫 만들기’ 사업은 시립 초·중·고등학교, 구청 등 오사카市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사업 도입 연도인 2009년에는 104개 시설, 2010년에는 485개 공공시설에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2011년도에는 시내 모든 시립 초·중학교(초등학교 286개교, 중학교 122개교)를 비롯하여 시청청사 옥상, 구청, 소방서, 보육시설 등 市 공공시설 506개 시설에서 사업이 실시되었음.
- 오사카市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음.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반드시 ‘녹색커튼’ 또는 ‘녹색카펫’ 만들기를 실시해야 하며(녹색커튼은 폭 1m 이상), (2) 실시한 사업의 내용을 홍보·공개해야 함.
- 현재까지 참여한 개인사업자들의 홍보·소개 활동을 살펴보면, 사업자 홈페이지, 전단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업소개, ‘녹색 커튼·카펫 만들기’를 위한 종이·자재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 지

원,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녹색 커튼·카펫’ 만들기 관련 강습회 개최, ‘녹색 커튼·카펫’ 관련 그림·사진 콘테스트 개최 등 본 사업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 등이 있었음.



<2012년도 녹색 커튼·카펫 만들기 일반부문 수상사례>

(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036336.html)

(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036/36336/A4front.pdf)

(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168768.html)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위해 ‘스마트 녹색 비즈니스 프로그램’ 확대 시행 (호주 시드니市)

- 시드니市는 2009년부터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 녹색 비즈니스 프로그램’(Smart Green Business Program)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자 이를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
- 수자원공사(Sydney Water)의 보조금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녹색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총 330개의 사업체가 참여하여 업체당 평균 6,900

호주달러(약 69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440메가 리터의 물, 2,900톤의 쓰레기, 그리고 4,525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시행 이후 두 번에 걸친(1단계와 2단계) 사업에서는 카페, 주점, 식당 등 주로 비사무실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발광 다이오드(LED) 전등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 사용, 물이 새는 낡은 수도꼭지 교체, 그리고 기압을 이용한 수도꼭지(aerated taps) 사용 등 매우 간단한 변화들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음. 이에 따라 이번에는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 시행하게 된 것임.
 - 대규모 사업장에 시행될 이번 3단계 ‘스마트 녹색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친환경 사업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과 행동 지침 등이 제공될 계획임. 참가 업체들은 에너지 절약 관련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최신의 친환경 정보를 제공받으며, 친환경 운영과 관련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이 3단계 ‘스마트 녹색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10%의 물 절약과 70%의 탄소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즉, 매년 총 600메가 리터의 물을 절약하고, 7,000톤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사업체가 협력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www.sydneymedia.com.au/big-business-smarter-greener-and-millions-ri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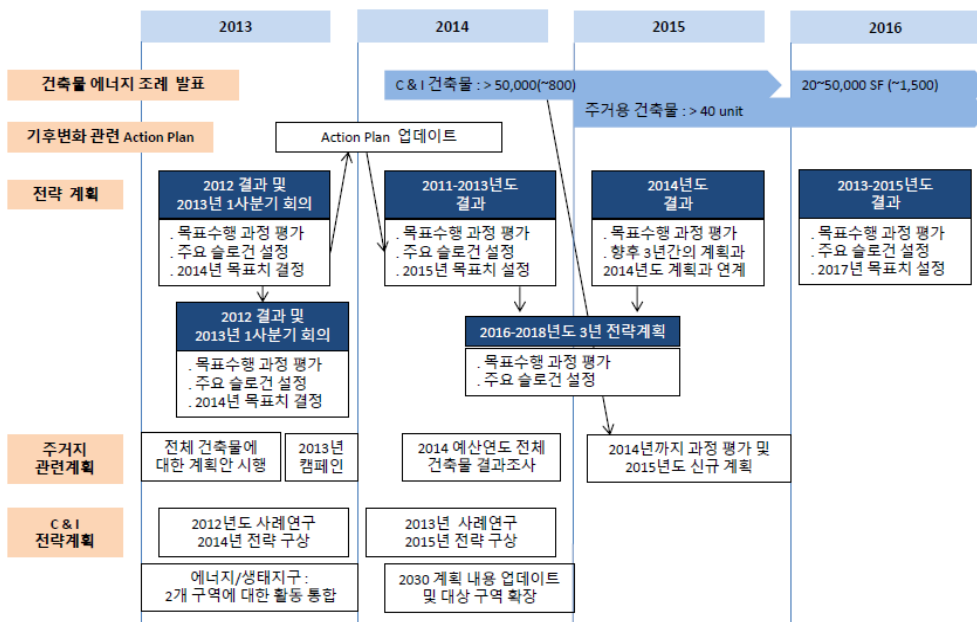
‘Renew Boston 전략계획 2013’ 발표 (미국 보스턴市)

- ‘리뉴 보스턴 전략계획 2013’(Renew Boston Strategic Plan 2013)은 2007년 보스턴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차원의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Action Plan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5년 이상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격적인 청정 에너지 전략계획으로 만들어짐. 리뉴 보스턴은 비용이 들지 않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 후 해당 주택은 단열 시공에 최대 200여만 원의 지원

을 받게 됨. 리뉴 보스턴은 보스턴의 에너지 효율 목표의 달성과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에서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까지 광범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리뉴 보스턴 전략계획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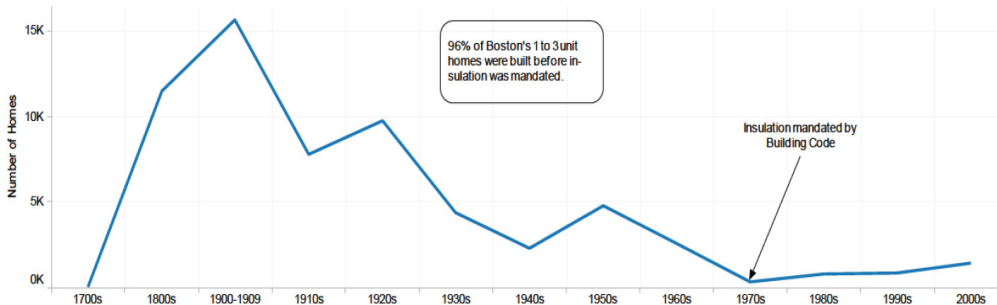
- 2009년 리뉴 보스턴 1.0 : 보스턴市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 2억여 원의 시예산으로 친환경 시공회사들을 선정하여 169세대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2010년 리뉴 보스턴 2.0 : 도시정부 예산과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른 도시에너지효율 보조금을 받아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에 사용하였으며, 리뉴 보스턴은 510세대 이상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사하고, 시예산(City Fund)도 추가로 5억 원 이상을 투입함.
- 2011~2012년 리뉴 보스턴 3.0 : 2.0, 3.0 이후 이와 연계하여 2013년도 목표를 재설정함.



출처 : http://www.cityofboston.gov/Images_Documents/RenewBoston-STRATEGIC-PLAN_2013_%20Updated_tcm3-37035.pdf 에서 재구성

〈연도별 전략계획〉

- 리뉴 보스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택용 건축물임을 강조하고, 보스턴의 주택이 대부분 노후 건축물인데 착안하여 건물의 내후성을 보완하는 기술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함.



〈보스턴 주택의 96%가 건축물 내장제를 의무화하기 전에 지어졌음을 설명하는 그래프〉

- 리뉴 보스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아래 그림과 같이 창문은 물론 건물의 외장을 다시 입히는 형태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출처 : <http://www.thebostonhometeam.com/blog/bostons-green-triple-decker-pilot-program-breaks-ground-in-jamaica-plain-sustainable-energy-efficient>

〈건물 외장 공사 사례〉

- 리뉴 보스턴 3.0에서는 주택뿐 아니라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에너

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www.cityofboston.gov/Images_Documents/RenewBoston-STRATEGIC-PLAN_2013_%20Updated_tcm3-37035.pdf)
(www.renewboston.org/)
(www.cityofboston.gov/Images_Documents/2010-03-30-renewboston-recommendations-phase1_tcm3-21888.pdf)

도 시 교 통

5.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멕시코 멕시코시티市, 미국 샌안토니오市)

- 도시고속도로의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버려진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멕시코시티市와 샌안토니오市는 이 버려진 공간을 쇼핑 플라자, 공공 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활동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거나 예술품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변신시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멕시코시티市에서는 그동안 고가도로 밑 공간을 노숙자들이 거주하거나 재활용품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상업적 공간과 도시 속 작은 공원을 함께 설치하여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 없이 시민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Bajo Puentes’(다리 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해 자연적으로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도 최소화하여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4곳에 마련된 이 작은 공원은 추후 20여 곳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50%는 공원으로, 30%는 상업적 용도로, 20%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 안전 사각지대로 취급받던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도시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음.



<멕시코시티市の 고가도로 밑에서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고가도로 밑에 설치된 카페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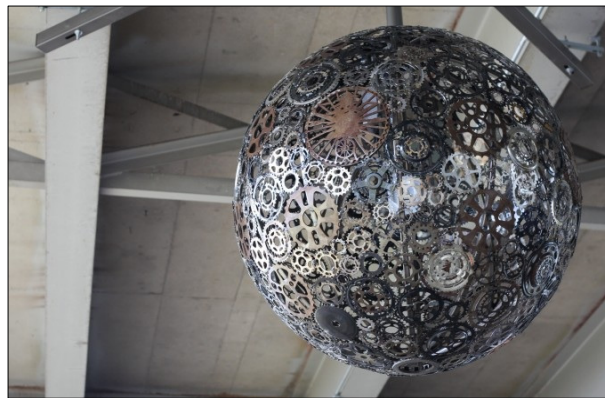
- 미국 텍사스州的 샌안토니오市에서는 도시 고속도로 1-10에 의해 양분된

두 지역을 통합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예술품을 전시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Ballroom Luminoso’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임.

- 이 프로젝트는 고속도로로 인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양분된 지역을 예술을 통해 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됨.



<고가도로 밑에 설치된 LED 조명시설>



<고가도로 밑에 설치된 예술품>

(www.washingtonpost.com/world/the_americas/in-mexico-city-planners-turn-vacant-space-under-freeways-into-places-to-work-dine-play/2013/05/28/ade28c26-c32e-11e2-9642-a56177f1cdf7_stor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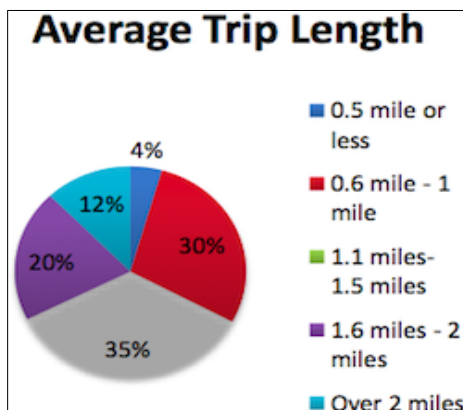
(www.timesdispatch.com/news/national-world/article_5a54ffd4-8336-5c55-b62b-af2ed9565426.html)

(www.theatlanticcities.com/design/2013/05/public-art-installation-b-ridges-gap-created-overpass/5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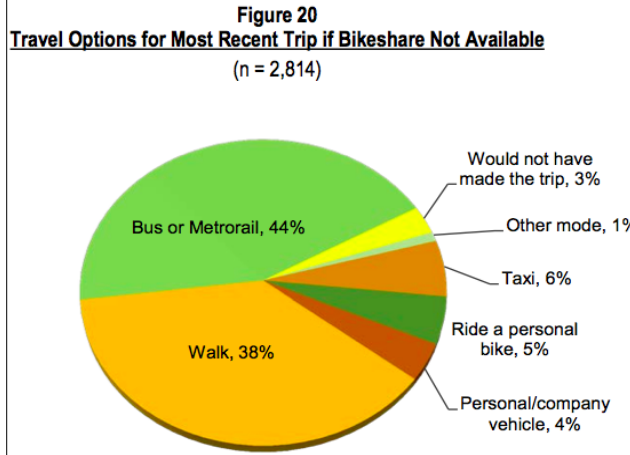
(www.jbpublicart.com/portfolio/ballroom_luminoso)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 워싱턴 D.C.)

- 워싱턴 D.C.에서 시행되고 있는 ‘Capital Bikeshare’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목적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됨.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승용차 이용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 현재 1,650여 대의 자전거와 175개의 자전거 대여소로 운영되고 있는 워싱턴 D.C.의 자전거 공유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의 대부분이 3km 미만의 통행에 자전거를 이용하였으며 오직 4% 이용자만이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통행수단을 변경하였다고 밝힘. 이러한 결과는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표본 2,814명으로부터 설문 조사된 평균 통행거리 비율(88% 이상이 약 3km 미만의 통행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



〈자전거 이용 이전의 교통수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2%의 이용자가 대중교통 또는 도보를 이용하였으며
 개인 승용차 이용자는 오직 4%에 불과함)〉

- 또한, 자전거 이용목적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이 목적지가 대중교통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전거를 이용 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자전거가 대중교통 이용의 연장선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른 도시의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전거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통행의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며 통행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함.

(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5/capital-bikeshare-hasnt-taken-many-cars-road-s-ok/5683/)

(www.capitalbikeshare.com/system-data)

혼합형 이동 방법 및 경로 제공 정보 사이트, ‘온리무브’ 개설 (프랑스 리옹市)

- 리옹광역시의 교통정보 사이트(Infotrafic.grandlyon.com)가 ‘온리무브’(Onlymoov.com, 리옹광역시의 슬로건인 온리리옹(OnlyLyon)의 하위브랜드)로 명칭을 바꾸면서, 전철,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외에도 자전거와 카풀, 도보이동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한 최단, 최선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포털로 거듭날 예정임.

- 이 사이트는 시내 이동에서 최단 경로 및 최선의 방법을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2013년 하계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2014년부터는 사이트에 최단 경로 및 최선의 이동방법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 현재 리옹1대학 도시계획학과와의 민·관·학 협동 프로젝트에서 실시간 최단경로 및 최단 이동 시간을 계산하는 통합기능을 마련 중임.



〈도심 내 혼합형 이동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온리무브 사이트 개장을 알리는 포스터〉

(www.Onlymoov.com)

도 시 계 획 · 주 택

도심에 취약계층과 대학생을 위한 혼합형 사회적 주택 개장 (파리시)

- 파리시는 대학생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5월 30일, 12구 베르시(Bercy)街 244~246번지에 새로운 사회적 주택을 개장함.
- 파리의 심장부, 가르 드 리옹역 근방에 개장된 이 사회적 주택은 도로면을 향해 청동빛과 은빛이 잘 조화된 현대적인 금속소재로 건물 앞부분을 새로 단장하였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건물 내부의 장방형 공간을 목재로 파티오 형태의 출입부로 꾸며놓았음. 건물 내부는 CROUS(학생복지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부 설치) 파리 지청이 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와 파리스市 부동산국의 감독 아래 르 리세몽 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음.



출처: 건축가 자크 오드랑(Jacques Audren)과 로베르 쉐랭베르제(Robert Schlumberger)

〈파리스市 12구 베르시가 246번지에 위치한 혼합형 사회적 주택의 전면부〉



출처: 앙리 가라(Henri Garat)

〈건물 출입부의 파티오 부분〉

- 학생용 202가구, 일반용 124가수로 구성된 이 사회적 주택은 본래 70년대에 지어진 프랑스 전화국의 옛 사무동 건물이었었는데 2년 반에 걸친 리노베이션

공사 끝에 골목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건축물이 색감과 음악성이 느껴지는 창조적인 시민 공간으로 변하게 된 것임. 공사를 맡은 두 명의 건축가들은 건물의 기본 골조와 기계 장치들(배관, 배선 등)은 크게 손대지 않으면서도 외관을 신소재인 Alucobond를 이용해 부드러운 인상을 창조하였고, 파티오 부분은 목재 포장재를 사용해 단순하면서도 조화롭고 따스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음.



출처 : 건축가 자크 오드랑(Jacques Audren)과 로베르
실랭베르제(Robert Schlumberger)

〈리노베이션 이전의 건물 모습〉

- 이러한 혼합형 주거 방식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덜 흔한 현상이었으나, CROUS나 다른 기관들의 지원 아래 점차 확산하는 추세임.

(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residence-sociale-de-la-rue-de-bercy/rub_1_actu_130816_port_24329)

도시역사유적 등록부에 1만 3,000여 곳의 옛 산업시설 등재 (프랑스 리옹市)

- 리옹광역시市는 옛 산업시설의 변천 모습을 기록하고 리노베이션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역사유적 등록부(IHU, inventaire historique urbain)에 리옹광역시권 내에 소재한 1만 3,000여 곳의 옛 산업시설을 등재함.



출처: Christian Devillers, Bouwfonds Marignan -Zen-2011

〈실크 생산공장이던 타스(Tase) 공장이 주거용 건물로 변화될 모습 조감도〉



출처: Jacques Léone - Grand Lyon - 2005

〈라 무쉬(La Mouche) 공단지역의 조망사진〉

-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늘날 유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옛 산업시설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서 중앙정부의 환경부와 지질광물국은 이 목록을 국가 산업유적 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리옹광역시로부터 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구매할 예정임.

(www.economie.grandlyon.com/actualite-economie-actu-lyon,194+M5482e943b76.0.html)